

이기 때문이다. 萬一 佛陀로부터의 授記弟子를 그에 充當한다면 譬喩品の 舍利佛에서 授學無學人記品の 阿難·羅睺羅에 이르기까지 九數를 헤아릴뿐 維摩經에서처럼 鮮明하게 十數를 채우지는 못한다. 事實이 北魏以來의 造像例에서 본다면 龍門山 擂鼓臺와 看經寺洞에 二十五體 혹은 二十九體의 羅漢像이 周壁에 列立한 先例를 들 수 있으나 이들은 「付法藏因緣傳」에서 보는바처럼 歷代 付祖師를 形容한 것이오 이른바 十大弟子와는 無關한 것들이다. 또 日本의 東大寺 俱舍曇茶羅라든가 六宗 厨子 繪像目錄等은 비록 後世의 傳摹라 할지언정 八世紀 當代의 消息을 간직한 것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며 모두 十體의 羅漢像에 名記를 가지고 있으면 이중에 聲聞한 弟子로서는 迦葉, 舍利弗, 阿難, 目捷連 또는 須菩提, 優婆離等의 數個弟子를 發見할뿐 나머지 是 宗派에 따라 無着, 世親, 혹은 維摩, 雪山童子等 出入이 區區하다. 所詮 石窟庵의 十體羅漢이 곧 十大弟子가 되자면 不得不 다른 데서 證明의 理由를 發見할 밖에 없다. 이에 對해선 後段에 다시 言及할 所지이다.

約 五十年前이 石窟에 大修理工事が 加해졌을때 窟內 土中에서 出土한 몇가지 遺物中 높이 二尺 남짓한 方塔斷石은 石窟의 教理를 闡明함에 있어 다시 없이 重要な 發見이었다. 方形塔身의 四周로 無數한 化佛— 곧 千佛이 浮彫되어 있으며 此種의 意匠은 北魏 雲崗石窟을 비롯하여 勿論 法華信仰이 있었던 곳이면 혹은 彫刻으로 혹은 繪畫로 許多한 先例를 남기고 있음을 보아온 터이다. 大樂說菩薩의 請願을 들으신 釋迦牟尼佛이 十方分身諸佛이 來會參坐한 가운데 多寶如來七寶塔의 地上涌出과 二佛併坐, 그리고 末代付囑의 神變에 이르기까지 靈山淨土에서의 儀相을 形象한 이른바 千佛多寶塔 역시 法華經 見寶塔品에 根據한 것임은 勿論이다.

以上 佛國寺의 双塔과 石窟의 諸彫像, 그리고 이제 紹介한 千佛多寶塔等은 吐含山 全域을 알기를 法華經에 說法된 하나의 靈山佛土로 擬定한 데서 나온 設計의 一端이었음을 말해줌이 分明한 듯하다. 甚히 平易한 事實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이 平易한 事實을 이만큼 自信을 가지고 披瀝하기에 이르기까지 實로 二十有五年의 歲月이 筆者에게 必要했다.

筆者의 極히 魯鈍한 才質의 탓이 없음을 勿論이려나와 그러나 그 동안 언제나 마음속에 매이지고 풀리지 않던 것이 이제 비로소 會心의 微笑를 얻는 기쁨이란 일로 비길 바 없다.

四

이 時期의 四方佛의 通念에서 본다면 釋迦佛은 方位上의 南面을 要求한다. 그러나 吐含山石窟은 東面해 있었다. 또 釋迦佛은 반드시 그 右手를 觸地降魔印으로 持해 있기를 要求한다. 그러나 石窟의 主尊은 그 右手를 地降魔印으로 持해 있다. 說法의 相이 아닌 調伏의 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엔 十一面觀音과 十個의 龕室속에 奉安된 여러 彫像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石窟의 造像이 單純한 靈山淨土의 說法相만을 意圖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石窟庵隨想

金 元 龍

岩山에 橫窟을 파서 寺院으로 만드는 所謂 石窟寺院은 印度에서 일어나 中亞를 거쳐 中國으로 들어 왔으며 中國에서 第一인 지 생진 佛教石窟에 西紀四世紀代에 造設되기 시작한 敦煌石窟이 있다. 그리하여 石窟寺院은 信者들의 加一層의 信心과 崇仰으로 因해 더욱 發達했으며 特別히 北朝에서 盛行하고 있다.

印度의 石窟은 查이타(Chaitya)라고 불리우는 長馬蹄形平面인데 窟內部에는 壁에 平行하며 돌아가는 石柱列이 서 있어 마치 教會의 翼廊같이 되어 있고 이 石柱內側, 馬蹄形石窟의 半圓部에 수투파를 세워 信者들이 그 周圍를 돌며 禮拜하도록 되어 있다. 印度에서는 이 밖에 禰하(विहार)라고 불리우는 多室石窟이 있으며 이것은 僧侶들을 위한 僧院窟이 된다.

以上과 같은石窟寺院은 印度같은 酷暑地方에서는 絶好的의避暑地가 되
기 때문에 發達을 보았으며 建築面으로도 單純한石窟로 그친 것이 아니
고 内部에 木造構造를 加工하고 入口도 매우 複雜한 構造를 가진 것이
있다.

二

中國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四世紀頃부터 石窟建設이 始作되었으
며 隋唐·代까지 繼續된 것이 적지 않다. 그런데 中國石窟에서는 雲岡石
窟같은 곳에 印度式的 窟이 타窟이 보이는 예가 있으나 全體적으로 壁面
에 佛像群을 彫刻하는 것이 壓倒的이며 그 平面形은 大體로 方形이고 主
室以外에 前室이나 側室을 가진 것도 있다. 이러한 平面形은 印度의 窟
하나라와 通하지만 도리어 中國在來의 石室墓나 塚室墓의 系統이라고 보
는 것이 妥當할 것 같으며 塔에서와 마찬가지로 印度石窟의 中國化樣式이
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佛像들을 中國式 木造建物(彫刻으로 된) 안에
配置한다는 着想 또는 敦煌石窟에서 前室天井은 所謂 八字形合掌天井이
고 主室 것은 截頭方錐形(折上)에다 中心部에 彫刻으로 抹角天井을 나
타내는 따위가 亦是 이러한 中國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三

우리의石窟庵은 印度에서 시작되어 中國으로 들어온 如上石窟들의
東端에 있는 一例이며 中國에서는 岩山에 많은 石室을 파들어 가고 있는
데 對해 여기서는 그 中의 一石室만을 分離 獨立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八世紀中葉頃에 突然이石窟庵이 생겼는가 하
면 그렇지 않고 百濟時代의 瑞山磨崖佛이라든가 慶州南山의 磨崖佛、石
佛群等의 造成이 마침내는 石窟庵같은 人工石窟建設의 機運을 育成했
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瑞山磨崖佛은 그 彫刻樣式이 一見 雲岡의 亞流
이며 이 彫刻工은 中國의石窟을 實見한 사람이 틀림없다. 古代 韓國
의 熱烈한 佛敎信仰者들이 中國의石窟을 보았을 때 그런 것을 韓國에
再現하였으면 하고 생각하였을 것은 必然한 일이며 그 實現을 막은 理由
가 있었다면 그것은 韓國의王室들은 財力이 充分하지 못하고 花崗石、
安山岩 같은 단단한 岩山이기 때문에 開鑿이 어려웠던 탓이라고 생각

된다.

穹窿形天井을 가진 石室은 新羅에서는 七世紀頃부터 墳墓로서 建設되
고 있는데 그것은 高句麗、百濟에서 들어온 樣式이며 新羅의 韓國統一
과 同時에 그러한 北、西方面으로부터의 各種工匠의 移住가 實施된
데 그原因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要컨대 穹窿天井을 가진 石室의 構
築은 新羅에서는 이미 石窟庵建設以前에 있었으며 그것은 아무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瑞山磨崖佛에서 보는 바와 같은 中國式石
窟에의 意欲이 이미 西紀六〇〇年頃부터 있었는 데 그것이 次次發展하여
露出해있는 圓像石佛을 도음天井石室로 덮어 一種의石窟을 만들어 보
자는 아이디어가 實現化한 것이 石窟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境
遇 前室과 主室을 두고 主室入口에 石柱를 세운다는 플랜은 中國石窟에
서 當然히 왔을 것이지만 高句麗의 双楹塚같은 것과 類似點도 滋味있
는 問題다.

四

石窟庵의 本尊佛은 말할 것 없이 釋迦如來인데 그것이 主室 中央에 있
는 것이 아니라 若干後壁쪽으로 물러 있는 것은 前面에 拜禮를 위한 空
間을 두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印度窟이 타에서 시작된 周廻路 即
繞道的인 性格을 띠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中國의 雲岡石窟에서는
本尊뒤에 繞道로서 墜道를 판 것이 있다.

却說 本尊인 釋迦如來 正後面에는 十一面觀音像이 있고 그 左右에 十
大弟子、二天、二菩薩을 配置하고 있는데 敦煌第一六八窟에서도 後壁에
觀音을 中心으로 十大弟子를 配置하고 있다. 그런데 入口側에 있는 二
天二菩薩이 十一面觀音을 中心으로 해서 左右相稱의 으로 일곱을 안으
로 둘러고 있는 것은 「佛國寺と石窟庵」(一九三八年)에서 指摘하였다 싶
이 中央의 本尊을 中心으로 統一된 釋迦道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周壁石像上部에 있는 龕도 中國石窟에서 많이 보는 바이고天井의 圓
蓮文도 雲岡이나 또는 高句麗墳墓에서 꼭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다.

前室은 橫長한 矩形이며 八部神衆、四天王像、仁王像等 諸像이 配置

되고 있는데天井은 없고露出되어 있다. 이렇게天井이 없는前室은雲岡에서도 볼 수 있으며雲岡第七、八兩洞은前室이 모두天井이 없으며 이것은元來兩洞을連結해서前室을 덮은木造지붕이 있었다고 믿어지고 있다. (雲岡第四卷 本文 P.三八 參照)

오늘날石窟庵補修에 있어서이前室을 어떻게 덮는가가 큰問題거리로 되어 있는데여기는元來는木造지붕이 세워져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五

總括적으로 말해 우리石窟庵은中國의石窟寺院에서 아이다이를 얻으면서中國石窟을直接的인範本으로 삼지 않고中國式인繁褥한圖像을取하지 않았으며簡潔하면서統一된 플랜으로莊嚴한石窟寺院을만들어내고 있다.

彫刻自體도長安寶慶寺石像樣式에立脚한것이分明하면서技術적으로는그것을 훨씬凌駕하고있으며寶慶寺石像이도리어石窟庵彫刻의墮落形式이라고보이게끔하고있다. (一九六一、八、六)

石窟庵에서 搬出된 塔像

黃 壽 永

石佛寺(石窟庵)의窟院은新羅의金冠이나高麗의磁器와같이地下에埋沒되었다가今世紀에 들어서日人에 의하여發見된것은아닙니다. 비록創建以來千餘年을지남에類落이尤甚하였고마침내天井一部까지落下되어窟內에는土砂가쌓여있었다하더라도뚜렷한伽藍으로서法燈을이어왔고僧侶와香徒에 의한重修의努力은前世紀末까지도 꾸준히 계속하여왔던것입니다. 그러므로石窟諸像의完存을奇蹟이었다고말하기에 앞서서 그 뒤에 숨은歷代의功德을 잊어서는아니될것입니다. 이같은事實은昨夏筆者가石窟庵에滯留하면서山下部落의古老들을

찾아서 더욱實感한바이지만石窟이國民의 새로운注視를 받게 된 것은日帝初의大規模改修以後이었다는것도否認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다만今日에 있어 애석한것은日帝에 의한解體修理에 앞서서自體의正確한現狀調査와記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또工事に 따라서發見되는重要한學的資料에對한收拾의努力이全無하였다는것입니다. 이것은日帝에 의한初期의修理事業(例如佛國寺益山彌勒寺石塔等)에서共通되는遺憾事였다고指摘할 수 있는바인데 이같은用意의不足은修理 그自體의完壁을期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그以後에 있어서의保存과研究를 위하여서도重大한障害가 되고야 말았다는것입니다. 오늘石窟의改修를 다시論議하게됨에 이르러 이같은點이 다시금느껴지는바입니다.

이같은事實은且置하더라도오늘의現狀이石窟의原形 그대로가아니라는點을이곳에서強調하여두고싶습니다. 비록本尊과周壁 및前室諸像一部の配置順이 옛과 같다고 하더라도石窟의構築手法이나外觀에는 많은任意的變形과倭色の加味가 있었다는것입니다.佛國寺의石築이나石窟의前室과入口墻垣等에서의變貌를日人自身도指摘하여「今日 새로운侮辱을修理라는 이름 밑에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손에 의한 새로운重修를 눈앞에 두고日帝에 의한變貌를原形으로錯覺하는 것과 같은疏忽한判定이 다시 되풀이되어서는아니될것입니다.

石窟庵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의窟院으로서의建造物이며 그自體는當代信仰과美術文化를內容으로 삼은物心兩面の凝結體입니다. 따라서 그가 지니는宗教的意義와造型美는 이와 같은觀點에서追究되어야 할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이石窟의現狀과僅少의資料만을根據삼아서라도 그精神的造形的인原態에對한復元的研究가우리 손에 의한改修와不可分の關聯을 갖고推進되어야 할것입니다.筆者는窟內奉安의像設로서傳來하던作品으로서 오늘 볼 수 없게된塔像에對하여記錄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두今世紀初에日帝에 의하여日本으로被奪되었다는嚴然한事實을指摘하여두고자하는것입니다.